

青海湖

1983



제 25 회



1982 학년도

청 호 국 민 학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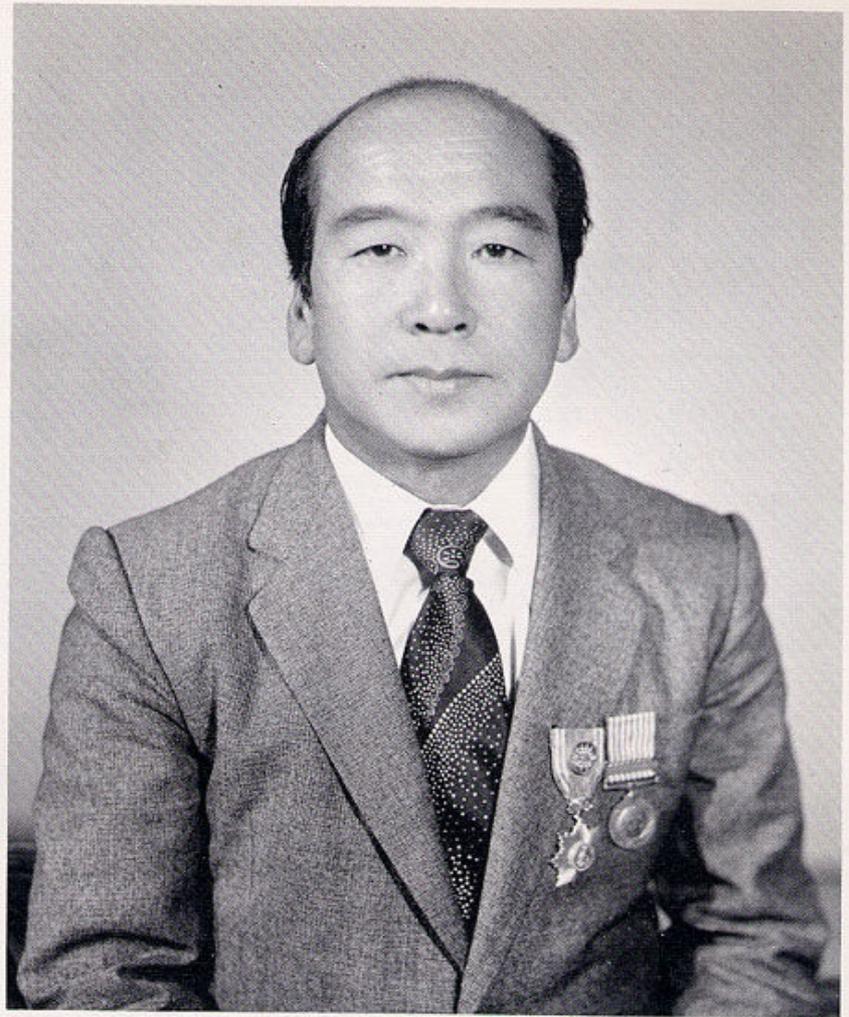
교 가

교 - 강한 설악산 - 온 우리 러 보 며
 모 - 또한 넓은 바 다 들 쪽 에 끼 고
 등 관 고 고 - 요 만 정 도 모 만 세
 백 사 장 에 이 - 죽 산 주 리 정 포 고
 장 하 다 주 리 학 교 문 화 의 미 건
 이 시 이 시 가 - 바 시 나 리 만 드 세



훈 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여
가정이나 나라의
기둥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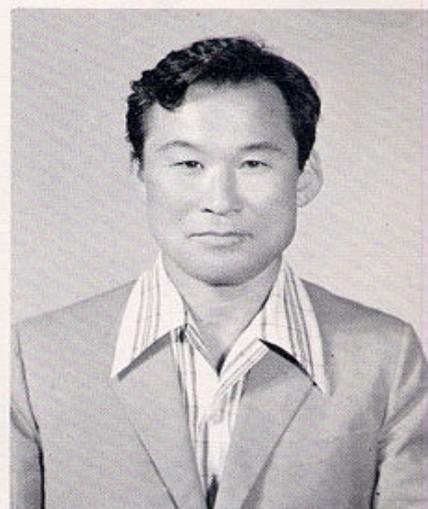
교장 김 태 환 선생님



교장선생님 집무광경



교감 차 중 철 선생님 집무모습



교무주임 백 범 익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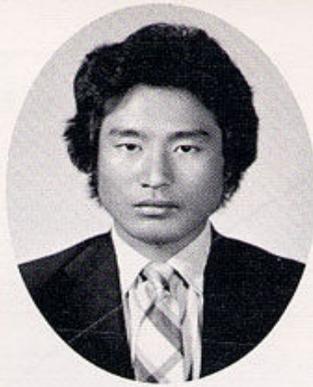
교직원 일동



5-1 박승룡선생님



5-2 안문숙선생님



5-3 정준학 선생님



4-1 이건하선생님



4-2 김미동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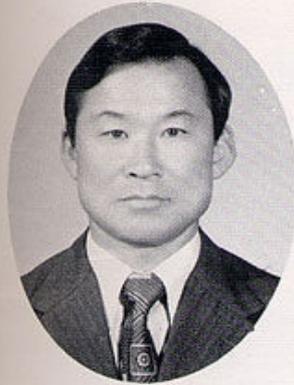
4-3 김 철선생님



3-1 김치우선생님



3-3 김주연선생님



2-1 백병익선생님



2-2 주승일선생님



1-1 노정현선생님



1-2 이경자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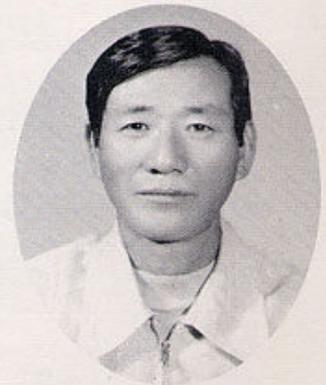
유치원백합반 한정란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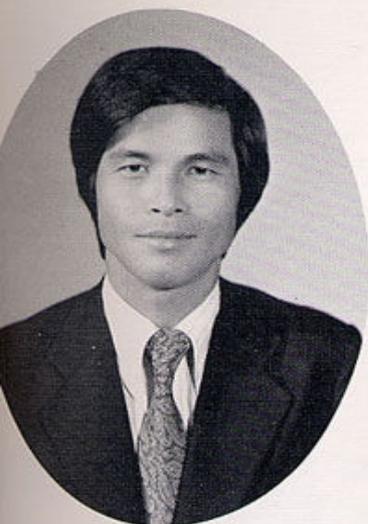
장미반 손경미선생님



박종규 서무주사님



박 용 목아저씨



담임 최남규 선생님



스스로 행하라!

'마지막수업'은 과연 불행한 것이었구나!

새 인간육성. 새 시대 창조



어언, 6년이 흘렀구나 이제 푸른꿈과 나래를 창공에



송민기



김영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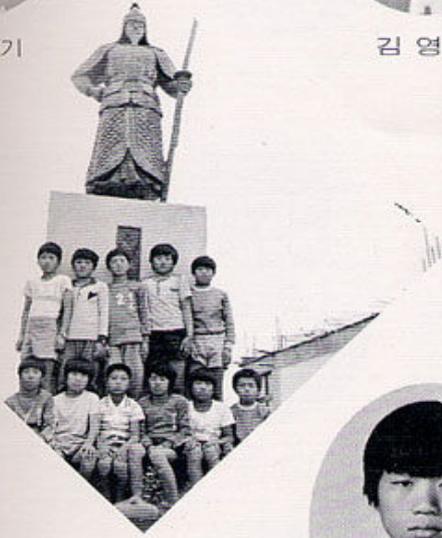
이진석



김성민



김봉훈



이순신장군과
같은 기상을



박치일



양동율



전희태



전광수



엄현익



정덕수



탁은희



김성욱



마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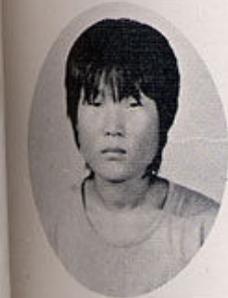
김순덕



오은남



김귀연



전미순



이연희



정해자



문미경



신미정



김수정



전정선



교목 자귀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으리





문태호



신창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주건



정성일



황형실



황두익



황흥일



고남근



김영수



김기선



권낙범



황희란



변원정



박수정



김윤정



박진호



이란미



김영애



신사임당과 같은 어머니의 덕을



박상미



고윤정



오은순



조향임



이미영



김용숙



문미경



최영희



담임 윤광석 선생님

꿈을 갖고
행동하라.



아! 발음이 정확하구나? 그러나 인상은 밝게

새 인간육성. 새 시대 창조



형설의 공 6년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네



이대길



권성열



조영만



고대수



우리는 인상과!



안동연



이광민



김일수



임남규



김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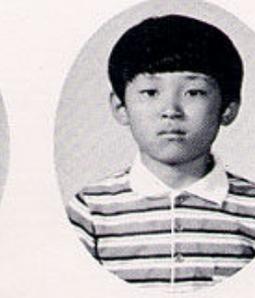
윤동열



염상열



김용범



최성배



박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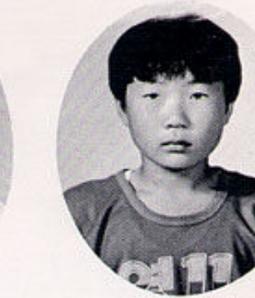
임선희



안혜열



김순애



박태열



새색시
들의 나들이



허민숙



김소향



조옥수



박윤미



김선희



이영자



김현숙



김희점



김동희



김승욱



안민수



김세년



백남익



박무용



오진구



박재민



악어등을 타고 밀림의 호수로



조경호



방종근



임상준



최영창



김한섬



김정애



김진숙



박승희



손혜진



이순애



고창미



김금성



꽃과 같이 예쁘게



박일례



김항숙



전영화



장은숙



담임 김인숙 선생님



밝고
맑고
바르게 !

왜 이렇게 답이 안나오지? 어렵기만 한 산수시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엄남두



김두식



강흥모



권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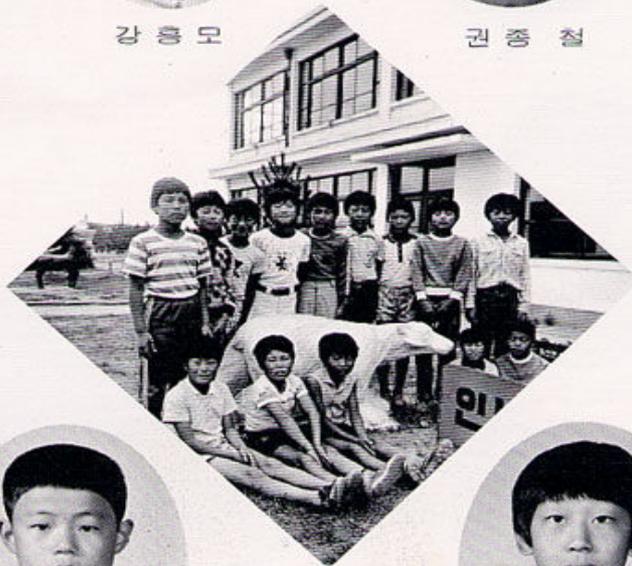
김철완



유성민



김정수



가슴 가득
새꿈을 펼치
면서



이철성



김승호



김동규



정택의



하동철



김인석



김성민



김원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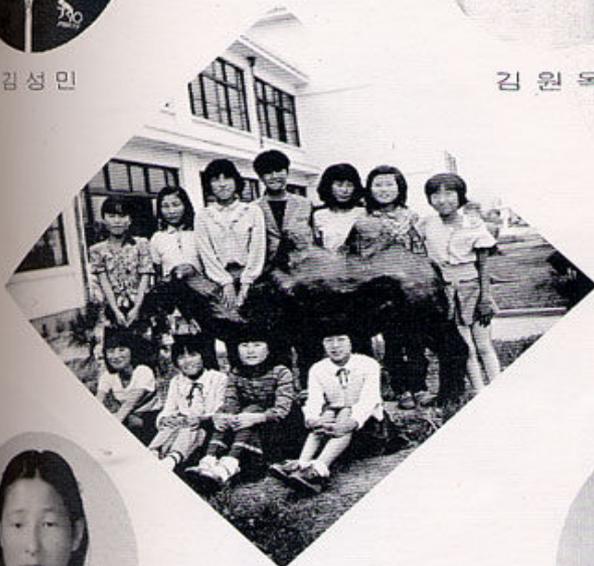
이현미



김난영



윤난희



김남희



서순화



박순희



박영희

모두들 예쁜이.
현모양처감이
따로 있나요?



박숙향



윤정희



김정숙



권혁민



송승철



김혁민



박성교



김성모



최상우



조철용



씩씩한 사나이로
자랄 우리의
어깨동무들.



라현석



김영익



이용복



이대호



전종욱



하상호



김민정



윤영희



박남국



진정미



황순미



김유경



이은영



정난지



박영선



전경임



황보경



최정미



박명숙

꽃과 같이
아름답게 자랄
우리
정든 교정에서.

〈속초시 학도체육대회 참가〉



축구경기에 출전하기 바로직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격려받는 우리 청호 축구선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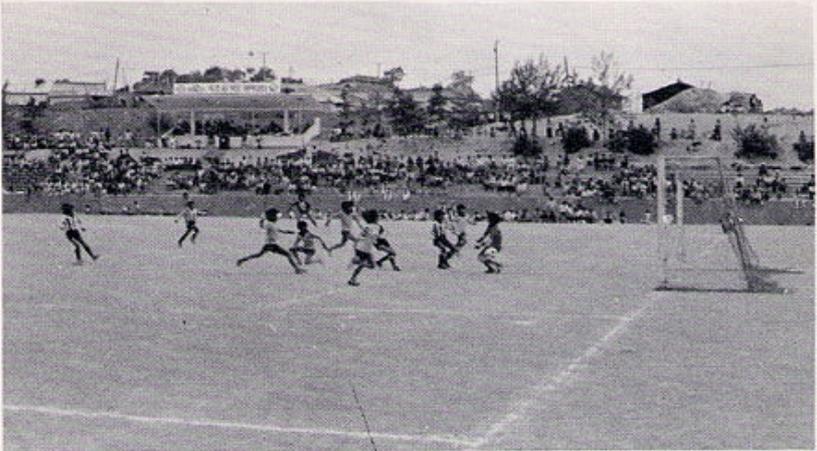
모무도 당당한 우리 선수단의 입장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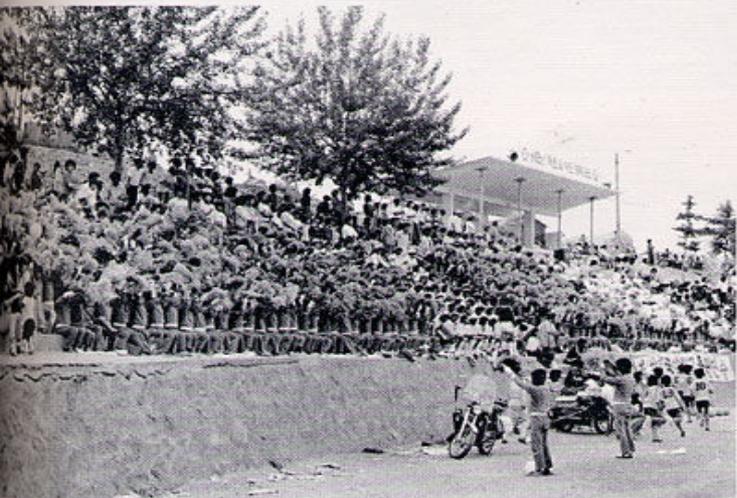
청호 리듬합주부의 행진광경



대 양양국교와 경기전 작전을 짜고있는 우리 선수들



대 양양국교 경기에서 질풍같은 공격으로 양양문전을 위협하는 우리 축구선수들. 우리는 1 : 0으로 이겼다.



응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응원단. 청호, 이겨라!



씨름경기에서 우승한 자랑스러운 우리 청호씨름 선수들. 우승컵과 금메달이 번쩍거리는구나!

특별활동 I



리듬합주부



합창부



그리기부



사육부



원예부



관화부



서예부



경필부

특별 활동 Ⅱ



육 상 부



씨 림 부



축 구 부



가 사 부



문 어 부



영 어 부

〈즐거운 가을운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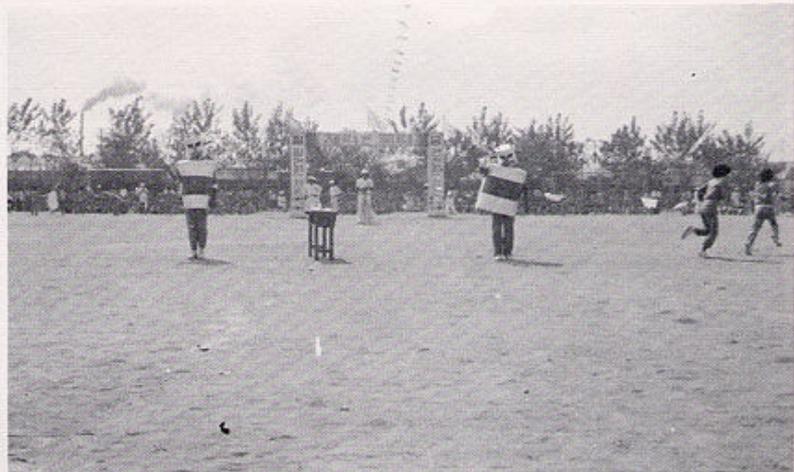
입 장 광 경



4, 5, 6년 남학생들의 차전놀이 경기



4, 5, 6년 남학생들의 기계체조



4학년 여학생들의 「나도 우주인」.



유치원어린이들의 '엄마와 함께' 경기모습



3학년 여학생들의 백두산에 태극기를



청호노인학교 학생들의 '나도 왕년에는'의 경기직전 모습



6학년남자의 기마농구

< 수학여행 I >



제비뽑기에 저서 작은차가 우리반 차지 (6-1반)



우리를 인솔하셨던 선생님들의 모습



듣기만 하던 오죽헌, 바로 여기였구나!



무슨 선물을 살꼬?



물론가 얼마더라. 아니, 따지면 말하나? 선생님께서 내실텐데.



정숙한 마음으로 입장해야지



이윤곡선생의 영전앞에서



대관령 이승복어린이 기념관에서

수학여행 II



즐거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내에 웃음이 가득.



콘맛이 꿀맛같구나!



이율곡선생 유적 정화 기념비 앞에서(6-1반)



오대산에서 제일높은 봉이 비로봉이구나!



이율곡선생 유적 기념관 앞에서(6-2)



오대산 상원사를 돌아보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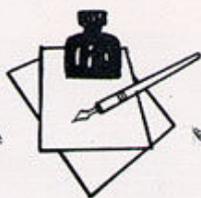
월정사8각9층 석탑처럼 곳곳하게 살리라(6-3)



신청만 하세요. 무슨 노래든지



♣ 편집 후기 ♣



아!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나 보다.
 엄마 아빠 손에 매달려 낯설고 호기심어리던 교정을
 들어서던 때가 어제같건만……
 우리에게 꿈을 길러 주시던 선생님,
 그리고 같은 교실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친구들, 정들었던 교정과 헤어짐을 생각하니 안타
 까움과 아쉬움만 남는다.
 그러나 마침은 곧 시작이겠지.
 우리의 꿈의 씨앗이 이곳에서 싹을 틔우고 이제
 푸르게 자라나 더 넓은 대지를 향하여 발돋움하려
 한다.
 가슴에 가득 새희망과 새생활을 설계하며 아쉽기
 만 한 6년의 긴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덮어
 두고 싶다.
 조그만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모이듯 장차 훌륭한
 이나라의 일꾼이 되어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함께 안녕을 고하자.

편집자 일동



